

# 이노티움 '이노마크'로 보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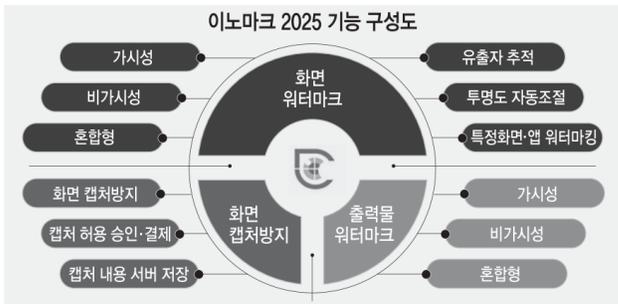
가시성·비가시성·혼합형 3가지 워터마크 기능 지원 캡처 방지·유출 경로 추적 대기업 등 공급... 日 진출

데이터 보안 플랫폼 기업 이노티움(대표 이형택)이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적용한 '이노마크 2025'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술은 가시성, 비가시성, 혼합형 워터마크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며, 화면 및 출력물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편의성을 최적화해 '편한 보안'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산업 기밀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불법 촬영과 화면 캡처를 통한 자료 유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볼펜, 시계 등)로 인해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는 보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이노마크 2025는 가시성·비가시성·혼합형 워터마크를 적용해 화면 보안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카메라 촬영을 통한 대량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중과 비업무 중 상황을 자동 구분해 워터마크 투명도를 조절하고, 랜덤한 위치 변경 기능을 통해 보안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외부 기관에 특정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적용해 기업 정보 비식별화를 지원한다. 출력물에도 가시성·비가시성·혼합형 워터마크 기능을 구현해 종이 문서 유출 시에도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화면 캡처 방지, 악성코드 유입 차단, 원격 데스크톱(원도 RDP) 보안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됐으며 PC,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망 분리 환경까지 모두 지원한다.

이 제품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GS인증 등 획득해 기능과 성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 현재 현대기아차그룹, 현대백화점그룹, IM뱅크, 현대카드, KB증권,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 방산 기업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형택 이노티움 대표는 "화면 촬영을 통한 핵심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존 보안 기술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이라며 "이노마크 2025가 첨단 산업기술 보유 기업, 방산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밀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

# 아드반테스트 'AI·고속 메모리 테스트 솔루션' 관심 집중

세미콘코리아서 1600명 방문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SEMICON Korea) 2025에서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전시회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해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종료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전시회 테마를 '차세대 테스트 자동화 통합 솔루션 제공과 지속 가능성, V93K 25주년 기념'로 설정했다. Memory, ESG, V93K, CREA&T2K 등의 네 가지 테마로 전시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고속 메모리 테스트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실제 제품의 축소 3D 모델을 전시, 방문객들이 관



'세미콘 코리아'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이틀째인 20일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메이플룸에서 Advantest Mini Technical Forum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고객들을 초청해 AI 기반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디바이스 평가, 초고전류 전원 공급 기술 등 핵심 주제들을 논의하고, 깊이 있는 기술 교류도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콘 코리아 2025를 통해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약 16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고객들과의 미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 "생성형 AI 자립 생태계·기술인재 확충 필요"

AX 정책 포럼  
명확한 가이드라인·법 제도 마련  
AI 연구개발·상용화 지원책 시급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AI 전환(AX) 정책 포럼'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정태호 국회의원(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이하 연구원)가 주관했다.

노규성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적, 경제적 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적 대응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AX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환영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생성형 AI는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핵심 요소로 AI 자립 생태계 구축과 기술 인재 확충이 중요하다"라면서 "혁신과 포용이 함께하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성형 AI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승의 금오공대 교수는 '생성형 AI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성형 AI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AI 전환(AX)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등 이슈를 짚으며 "안정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이 '생성형 AI의 국제 진흥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생성형 AI 정책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도 AI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 개방, AI 교육 확대, 규제 완화 등 전략을 제안했다.

회장으로 중국 현지에서 특별이슈를 발표한 김준연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은 '딥씨크(DeepSeek) 출현과 중국의 AI 정책 대응'을 분석했다. 그는 중국 AI 정책 변화와 딥씨크 같은 새로운 AI 모델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딥씨크는 기존 AI 모델 대비 높은 비용 효율성과 연산 최적화를 이루며, 한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병에 대한료 데이터협회장, 유정수 전주교육대 교수, 신기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실 부연구위원이, 이어진 회원토론에서는 배석한 한국생성형AI연구원 회원들이 생성형 AI의 연구개발, 정책 지원 방안, 인재 양성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생성형 AI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AI 전환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국 AX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

# 디지털, 실무 적용 3D 모델링 무료 교육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 대상

이들에 걸쳐 이루어졌다. 해당 교육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Revit 개념부터 실제 프로젝트 모델링 실습 및 BIM 데이터 활용 등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위주로 진행했다. 디지털은 신형 회사에 한해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며, 회원사들의 전문 엔지니어 양성에 힘을 실었다. 실습에 필요한 교육 장비는 디지털의 모회사인 한국렌탈을 통해 렌탈 받은 제품으로, Revit 프로그램 구동에 문제가 없는 고사양 노트북으로 제공됐다. 이번

교육 신청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디지털은 3월 11-12일 이틀간 같은 커리큘럼 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관계자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를 위한 3D 모델링 교육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더 많은 전문가가 B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관계자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3D 모델링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지털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

**2025년 전자신문 온·오프라인 콘퍼런스 및 전시일정** [www.sek.co.kr](http://www.sek.co.kr)

전자신문 정보사업국은 2025년 대한민국 ICT 산업을 관통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시킬 다양한 사업(전시, 콘퍼런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전시회 콘퍼런스 세미나 이벤트로 최신 이슈와 트렌드를 공유하십시오.**

월드IT쇼, 소프트웨어브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해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CIO서밋, 공공 솔루션 마켓 등 ICT 관련 콘퍼런스, 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신 정보 공유와 기업들의 유망기술을 소개함으로써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주요 행사 소개
<b>행사기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 컨셉 및 운영방안 협의, 수행계획 수립</li> <li>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미디어 플랜 수립</li> </ul>	<b>World IT Sho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 Un-tact 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디바이스 및 디지털 기전 등의 전시회</li> </ul>
<b>행사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 컨셉 및 운영방안 협의, 수행계획 수립</li> <li>참가기업 부스 및 관람객 유치</li> <li>콘퍼런스 애드온 적성 및 국내외 저명인사 섭외</li> </ul>	<b>Soft Wave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대 SW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li> <li>참가사 임원 네트워킹,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시상식 등</li> </ul>
<b>미디어 캠페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층보도, 연재기사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li> <li>전체사업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행사기획 보도</li> </ul>	<b>CIO Summi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대 규모 CIO/CSO 및 ICT중사자 콘퍼런스</li> <li>의사결정권자 및 고객사 참가 비중이 높은 명문 행사</li> <li>'CIO/CSO 패널토의' 명성</li> </ul>
<b>사전행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사전행사 개최를 통한 분위기 조성</li> <li>자문위원회의 조직, 전문가 자문회 등 개최</li> </ul>	<b>공공솔루션마켓</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ICT분야 국내 최대 규모 콘퍼런스 &amp; 전시</li> <li>공공정보화 시장 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솔루션 소개</li> </ul>

**행사 문의**  
전자신문 정보사업국  
성은안 차장 | 02-2168-9460 | nani@etnews.com